

'안경 벗은' 에이스 무실점 쾌투 "올시즌도 걱정마"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8프로야구 시범경기 두산 베어스전에 선발출장한 KIA 양현종이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양현종 3이닝2피안타1K...KIA, 두산에 2-5패 오정환·홍재호 등 젊은선수들 대거 기용 테스트

김기태 KIA 타이거즈 감독은 14일 시범경기 두산전에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개막 둘째 날 선발 예정인 투수 양현종의 구위 테스트, 그리고 '칼을 갈고 왔다'며 2군에서 올라온 내야 백업 후보군들의 경기력 점검이었다. 경기 결과 두산에 2-5로 패했지만, 양현종은 지난해 정규시즌, 한국시리즈 MVP 담겨 갈끔한 피칭을 선보였고 내야 백업들도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며 후일을 기약했다. 양현종은 1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2018 신한은행 마자카 KBO 시범경기 선발 등판해 3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았

다. 삼진과 볼넷은 각각 1개씩이었다. 이날 양현종은 슬라이더 6개, 체인지업 4개, 커브 4개 등 변화구를 고르게 던지며 투구를 점검했다. 직구는 21개였고 최고구속은 144km를 기록했다. 투구수 45-50개를 목표로 등판했던 양현종은 35개만 던진 뒤 4회 초 유승철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경기 뒤 양현종은 "오늘은 투구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즌 준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규시즌 개막에 맞춰 몸을 만들었고, 계획한 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외적으로는 '팬들과의 공약'도 실천에 옮겨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양현종은 안경을 쓰지 않고 공을 던졌다. 지난해 초 스프링캠프에서 한 방송사와 우승·타이거즈 좌완 최다승·돌째날기 등 3가지를 모두 달성하면 다음 시즌에 안경을 벗고 던지겠다고 약속했던 양현종은 3가지를 모두 이루자 약속대로 이날 안경을 벗고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안경 벗은' 양현종은 이날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양현종은 "정규시즌 때는 다시 예전처럼 안경을 쓰고 던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말까지 시범경기 6경기중 2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던 김기태 감독은 이날 라인업을 백업선수들로 구성했다.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2군 선수중 오정환, 오준혁, 김주형, 홍재호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 감독은 "특히 김주형, 홍재호, 오

준혁이 (2군에서) 칼을 갈고 왔다고 하길래 갈지 말라고 칼을 쓰라고 했다"며 "젊은 선수들의 게임을 실제로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선수들중 개막전 엔트리 포함될 선수에 대해서는 "일급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KIA는 3회 정성훈의 2루타와 유민상의 중전적시타로 선취득점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6회 두산에 홈런을 내주면서 1-4로 리드를 뺏겼다. 8회초에 1점을 더 잃은 KIA는 9회말 이명기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1루주자를 불러들이면서 1점을 만회했다. 임창용은 1이닝 3피안타 2피홈런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유승철(2이닝 1피안타 무실점)과 문경찬(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은 호투를 펼쳤다. KIA는 15-16일 넥센과 흥경기를 갖는다. 15일 경기는 야간경기 적용을 대비해 오후 5시에 시작된다./최진화 기자

"사투리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청취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함을 재미있게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김중모 전 KIA 타이거즈 수석코치(59)가 올시즌 kbc 광주방송 라디오 야구중계 해설을 맡아 오는 24일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개막전부터 해설위원으로 활약한다. 개그맨 양원경과 함께 광주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 경기의 해설을 하게 된 김전 코치는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 김기태 감독과 코칭스태프 등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김 전 코치는 "한달여 전에 해설 제의를 받아 수락했다"며 "절반 정도의 복귀하기는 하지만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김중모 전 KIA 코치 해설위원 변신

kbc 광주방송 라디오 야구중계 맡아

생각에 기본도 남다르고 또 막상 그라운드를 밟으니 설레고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kbc 광주방송 라디오 야구중계는 KIA 타이거즈 팬들을 위한 편파(?) 중계다. 이에 김전 코치도 큰 부담없이 해설을 수락했으며 그동안 선수로 지도자로 쌓아온 야구 경험과 상황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코치는 "예전 무등경기장 시절

잠시 TV 야구중계를 통해 해설을 해본 경험이 있다"며 "처음 해설을 할 때는 긴장도 되고 떨렸었는데 한경기 하고나니 익숙해졌다. 당시 경험도 있는 만큼 이번 중계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kbc 라디오 야구중계가 청취율도 꽤 많이 나오고 반응도 좋았었다"고 덧붙였다. "양원경씨와 호흡을 잘 맞춰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코치는 "다음주 개막전 해설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항이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다"면서 "김기태 감독이 반겨 주면서 야구장에 올 때 항상 만나고 가셔야 한다고 당부하더라"고 웃었다. 더불어 "선수로, 지도자로 11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타이거즈 팬들에게 해설을 통해 다시 한번 우승의 현장을 전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최진화 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용배 코치, 김세빈, 정보련, 박한휘, 김정미, 유영철 감독.

전남기술과학고 회장배중별펜싱 단체전 우승

전남기술과학고가 14일 해남우슬체육관에서 끝난 제47회 회장배전국남녀중별 펜싱선수권대회 여고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기술과학고는 김정미(3년), 박한휘, 장보련(이상 2년), 김세빈(1년)가 호흡을 맞춰 서울체고를 45-30로 제압,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사브르 개인전에서 김정미와 김세빈이 결승에 올랐고, 15-2로 승리한 김

정미가 금메달을, 김세빈이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인 전남기술과학고 펜싱팀은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 준우승을 차지하며, 여고부 사브르 최강팀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전남기술과학고는 올해 체전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김성연·이혜경·박다솔 AG 태극마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27)과 이혜경(22), 순천시청 박다솔(22)이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김성연과 박다솔은 지난 12일부터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2018 국가대표 2차(최종) 선발전에서 각각 여자일반부 70kg급과 52kg급 우승을 차지하며 8월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성연은 결승에서 라이벌 정혜진(안산시청)을 경기시작 20여초만에 안뒤축후리기 기술로 한판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성연은 1회전 신승기(부산북구청)를 누르기 한판, 2회전 윤주희(용인대)를 꺾기 한판, 8강전 류예담(한국체대)을 발뒤축후리기 한판으로 가볍게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이예원(한국체대)도 발뒤축결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완벽한 경기력으로 결승에 올랐다. 김성연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도 정혜진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은 "성연이의 주특기인 업어치기를 방어하려는 상대방에게 반대편 기술인 발뒤축결기나 후리기를 연습했던 게 주효했다"고 밝혔다. 박다솔도 결승에서 하주희(고창군청)를 상대로 반칙 승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여자일반부 48kg급에서 3위를 차지한 이혜경은 경기 종료후 열린 대한유도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경기력을 인정받아 국가대표에 합류하게 됐다. /최진화 기자



힘차게 올라가는 신의현 14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1km 스프린트 좌식 결승 경기에서 한국 신의현이 언덕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휠체어 컬링 노르웨이에 발목

2-9 패배...신의현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 6위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 '오벤저스'가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노르웨이에 발목이 잡혔다. 백중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세계랭킹 7위)은 14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노르웨이(세계랭킹 3위)와 예선 8차전에서 2-9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6승 2패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의 1차 목표는 준결승(4강)에 오르는 것이다. 11차례의 예선 경기에서 7승 또는 8

승 이상을 거두면 4강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3차례의 경기에서 1승 또는 2승을 거두면 4강행 전망은 여전히 밝다. 한국은 1엔드에 2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2엔드에 2점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4엔드에 2점, 5엔드에 1점을 허용한 한국은 2-5로 뒤진 채 맞은 6엔드에 무너졌다. 노르웨이의 스톤 4개가 하우스 주변부에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차재관이 마지막 스톤을 중심부에 놓으면 3-5로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었다. 하지만 차재관이 힘 조절에 실패하면서 스톤은 하우스에 못 미쳤고, 결국 4점을 허용해 2-9로 점수 차가 벌어지고 말았다. 백중철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이날 오후 7시 35분부터 스웨덴과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기권을 선언했다. 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신의현(37·창성건설)은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1km 스프린트 좌식 결승

에서 3분 38초 70의 기록으로 6위에 올랐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1km 스프린트 좌식 경기에선 이도연(46)과 서보라미(32)가 예선 성적 18위와 19위로 탈락했다. 남자 1.5km 스프린트 시작 종목에 출전한 최보규(24)도 예선 19위로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15일 낮 12시 강릉하키센터에서 세계랭킹 1위 캐나다와 운명의 준결승 대결을 벌인다. 안방에서 캐나다를 꺾는 '빙판 위 반란'을 일으킨다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최소 은메달을 확보한다. 반면 캐나다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3-4위 결정전으로 밀려 동메달 획득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